

죽음과 애도로 본 본풀이 속 좌정 처(處)의 의미 탐색

- <초공본풀이>와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

강 지 영*

차 례

- | | |
|---------------------------------------|------------------------|
| 1. 서론 | 3. <이공본풀이> 속 원강아미의 죽음과 |
| 2. <초공본풀이> 속 모자(母子)의
죽음과 좌정 그리고 애도 | 애도 터전으로서의 서천 꽃밭 |
| | 4. 결론 |

국문초록

<초공본풀이>와 <이공본풀이>의 죽음과 환생, 신들의 좌정 처를 통해 애도의 성립과 층위를 정교화해 보았다. <초공본풀이>의 자지맹왕 아기씨의 죽음은 육체가 지계(地界)로부터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죽음을 곧바로 받아들이는 즉각적 애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훼손되지 않은 채 환생한 육체는 지계(地界)의 당신(堂神)으로 좌정하였다. 자지맹왕 아기씨를 지계(地界)에 좌정시키는 것이 망자를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는 지연된 애도를 보여준다고 읽어들었다. 아들들의 죽음은 육체에서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옥황에 불려가는 것으로

* 목포대학교 조교수

나타난다. 이 지점에서 즉각적 애도를 읽어냈다. 환생 등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지연된 애도에서의 상징화 된 애도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읽어냈다. 아들들은 몸을 잃은 천계의 존재로 좌절하게 되었다. 육체의 환생이 없었기에 천계에서의 이 좌절 터 지정을 통해 자지맹왕 아기씨와의 죽음과는 다른 애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읽어냈다. <초공본풀이>의 원강아미는 신체가 훼손되어 죽는다. 일종의 의례를 통해 환생하는 데서 지연된 애도를 읽어냈다. 상당한 신체 훼손 장면을 통해 죽음에 대한 강한 트라우마를 남긴 원강아미의 좌절 터는 낙원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서천 꽃밭이었다. 서천 꽃밭이 신체 훼손에 따른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완화하기 위한 완충 지대로 배치되었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서천 꽃밭이 애도의 또 하나의 새로운 터전으로 지라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죽음이 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죽음에서 몸의 훼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주목하였다. 망자의 신체 훼손이나 환생이 죽음에 따라 트라우마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트라우마의 극복 양상도 달라진다고 보았다. 환생 여부나 좌절 처(處)를 애도와 연결하여 트라우마 극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환생 이후 신의 좌절 터전 차이를 통해 망자를 보는 산자의 애도가 이루어지는 층위의 해석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읽어냈다.

주제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죽음, 애도, 좌절

1. 서론

곳은 망자를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로써 산 자들이 죽은 이들을 떠나보내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곳은 죽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굿이라는 절차를 통해 망자와 산자를 구분하며 살아 있음과 죽음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망자를 떠나보내는 일이 그만큼 단순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는 죽음이라는 영별(永別)이 살아 있는 동안 마주하게 되는 이별 중 가장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트라우마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정신에 구멍이 난 것을 전제로 발생한다. 주체의 정신적 보호막이 뚫릴 만큼 강력한 자극이 있을 때 작동한다.¹⁾ 충격적인 사건을 겪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정신적 보호막을 만든데, 감당하기 힘든 사건은 이 보호막을 뚫게 된다. 그에 따라 정신에 강력한 외부 자극이 주어진다. 정신이 흔들리게 되므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에너지가 소환된다. 이때 트라우마가 남긴 구멍에 리비도²⁾가 집중된다. 리비도의 집중으로 인해 다른 기능은 마비된다. 그에 따라 쾌와 불쾌의 균형 유지라는 쾌락원칙³⁾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발생한다. 말하자면 트라우마는 최초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으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후 그것을 환기하는 후행 사건이 일어나 선행 사건의 은폐된 기억이 환기, 쾌락원칙이 깨지게 되는 것을 이른다. 첫 사건이 의식화되지 않은 상흔을 남기고 후행 사건으로 선행 경험을 둘러싸고 있던 보호막의 뚫림에서 무방비함과 리비도의 과편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이자 강력한 자극이다. 누군

1)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찬부 역, 「쾌락원칙을 넘어서」,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12, 299-301쪽.

2) 성본능 또는 성충동으로 풀이되는 리비도는 Id에서 나오는 정신 에너지로 욕망 만족을 위한 움직임에 필요한 에너지 전반을 이른다. 리비도는 욕망의 방향이 내부이나 외부이냐에 따라 자아 리비도와 대상 리비도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찬부 옮김, 「쾌락원칙을 넘어서」,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12.에서 상론한다.

3)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찬부 옮김, 「쾌락원칙을 넘어서」,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12, 299-301쪽.

가의 죽음을 마주하는 것은 평생 한 번에 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어떻게 마주해가지를 탐색해 살펴보는 것은 망자의 죽음 이후 삶을 이어가야 하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죽음의 수용은 죽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탐색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학 작품 등을 통해 죽음의 처리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죽음의 수용과 이후의 감정 처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관점을 견지하여 이 연구에서는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들이 신으로 좌정되기 전의 죽음과 신으로서의 좌정 과정을 담고 있는 본풀이를 대상으로, 죽음이 어떻게 그려지고 그 죽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망자를 떠나보내는 마음인 애도의 층위를 읽어내 보고자 한다.

죽음은 트라우마를 남긴다. 망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마음속에서부터 떠나보내는 과정 전반을 애도(哀悼)라고 한다면 죽음으로 인해 비롯되는 트라우마는 애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망자를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떠나보낸 상태를 애도로 그려하지 못한 상태를 멜랑콜리로 구분한 프로이트를 비롯하여 수많은 학자가 애도에 관해 논한 바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망자의 죽음이 산 자에게 충격을 남기고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그 충격이 어떤 형태로건 소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몸의 훼손을 중심으로 죽음의 양상을 먼저 읽어낸다. 죽음 이후 이루어지는 환생 여부나 신들의 좌정 처(處)를 몸의 훼손과 그에 따른 애도 양상을 염두에 두고 해석한다. 몸의 훼손에 따라 좌정 처(處)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므로 그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

4) 관련하여서는 강지영, 「함흥본 <바리데기>에 나타나는 딸들의 자리 잡기」, 『우리어문연구』 제80집, 우리어문학회, 2024, 385-412쪽; 강지영, 「드라마 <지옥>과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의 죽음과 애도」, 『국제어문』 제98집, 국제어문학회, 2023, 677-697쪽; 강지영, 「심청·효·데리다 - 효와 효행의 구분과 해체를 통한 <심청전> 연구-」,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1-214쪽에서 앞선 여러 연구를 비교하여 논하고 있다.

<초공본풀이>와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⁵⁾ 죽음의 지점과 애도 층위를 살펴본다.

<초공본풀이>는 <제석본풀이>와의 비교, 성격⁶⁾, 등장인물 및 서사 구조 분석⁷⁾을 중심으로 앞선 연구가 이어져 내려왔다. <이공본풀이>는 서사 구조 및 내용 연구⁸⁾, 비교 연구,⁹⁾ 죽음 연구, 서천 꽃발 연구 등이

-
- 5) 이 연구에서는 망자 구현 장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두 본풀이를 중심으로 구현 양상의 차이와 신의 좌정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를 먼저 탐색한다. 이후 후행 연구를 전체 본풀이를 중심으로 죽음의 지점과 애도 양상 및 그 의미를 확장하여 읽어나가는 것으로 연구의 깊이를 더해 가고자 한다. 죽음이 있을 당시의 신체 훼손과 좌정 처(處)의 차이를 거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므로 연구 대상은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3쇄, 민속원, 2016에 수록된 김병효 구송본 <초공본풀이>와 조흥대 구송본 <이공본풀이>로 한정한다. 김병효 구송본에서는 죽음이라 이를 수 있는 장면이 ‘깊은 곳에 앉았다’고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다. 김병효 구송본 속 어머니의 죽음은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으나 죽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아들들의 죽음과 좌정과 좌정 터가 명확히 드러나므로 김병효 구송본을 주요 분석 텍스트로 한다.
- 6) 김현선,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413-459쪽; 서대석, 『무가문학의 세계』, 집문당, 2011, 183-199쪽;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비속함과 성스러움」, 『고전문학연구』 제42집, 한국고전문학회, 2012, 169-193쪽; 전주희, 「제주도 무가 ‘삼맹두’를 통해 본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 『민속학연구』 제29집, 2011, 5-28쪽.
- 7) 염원희, 「무속신화의 여신 수난과 신 직능의 상관성 연구」, 『한국무속학』 제20집, 한국무속학회, 305-2010, 305-333쪽; 윤교임, 「여성영웅신화연구: 초공본풀이·삼공본풀이·세경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6, 1-106쪽; 이경하,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51-180쪽; 이경화, 「<초공본풀이>와 <思松金>의 인물 관계와 그 의미」, 『한국무속학』 제37집, 2017, 199-220쪽.
- 8) 강지연, 「제주도 서사무가 <이공본풀이>에서의 ‘분노’의 감정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제62집, 민족문화사연구소, 제62집, 159-188쪽; 고은영, 「모순된 서사의 제의적 반영 -<삼승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41집, 한국무속학회, 2020, 123-146쪽; 서대석, 「서사무가 연구: 설화, 소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9, 1-175쪽; 신호림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기호학적 의미」, 『기호학연구』 제46집, 한국기호학회, 2016, 94-123쪽; 양용준,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통과의례적 의미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66쪽;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

있었다. 죽음과 관련하여서는 죽음 관련 인식을 연구¹⁰⁾하거나 여성과 남성에 따라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¹¹⁾를 분석하거나 서천 꽃밭의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죽음은 다른 본풀이와 비교하여 자주 연구되었는데, 죽음을 받아들이는 주체와 좌정의 의미와 죽음의 양상에 관한 해석이 주로 이루어졌다. 서천 꽃밭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꽃밭의 성격 규명에 주목¹²⁾하거나 치유력을 가진 꽃과 그 성격을 살펴보

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247쪽.

- 9) 김진영, 「안락국태자전승의 무가적 전개: <지림사연기문>과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2집, 423-449쪽, 한국고소설학회, 1996, 423-449쪽; 사재동, 「<안락국전>의 연구」, 『어문연구』 제13집, 충남대학교 문리과학대학 어문연구회, 1984, 21-43쪽; 신연우, 「여성 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 이공, 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233-257쪽; 이수자,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서사문학적 변용과 그 의의 -고소설 <안락국전>의 소재적 원천과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을 겸하여」, 『구비문학연구』 제67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22, 135-208쪽; 이지영, 「무속신화에 나타난 救藥모티프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427-458쪽.
- 10)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초월공간과 중심공간」, 『탐라문화』 제36집, 제주도 탐라문화연구원, 2010, 85-110쪽;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비속함과 성스러움」, 『고전문학연구』 제42집, 한국고전문학회, 2012, 169-193쪽; 신호림, 「함경도 서사무가 <도량선배청정각시>에 나타난 희생의 성격과 제의적 의미」, 『고전과해석』 제33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21, 35-64쪽; 오세정, 「<도량선비 청정각시>의 서사 구조와 죽음의 의미」, 『한국무속학』 제45집, 한국무속학회, 2022, 117-145쪽; 윤준섭, 「<도량선비청정각시>에 나타난 청정각시 죽음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53집, 한국고전문학회, 2018, 233-270쪽; 정제호, 「<도량선비 청정각시>에 나타난 고난의 의미와 제의적 기능」, 『고전과해석』 제23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7, 65-88쪽; 전주희, 「제주도 무구 '삼맹두'를 통해 본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 『민속학연구』 제29집, 국립민속박물관, 2011, 5-28쪽.
- 11) 류정월, 「종교적 영웅 서사로서 <초공본풀이> 연구—무조신(巫祖神)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4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211-239쪽; 신연우, 「여성 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 이공, 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233-257쪽.
- 12) 강진옥, 「무속 여성 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26쪽; 김창일, 「무속 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한국무속학회, 2002, 175-200

는 연구¹³⁾의 두 가지로 나뉘었다. 좌정 처로서의 서천 꽃밭은 주로 ‘치유’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치유’를 신체의 훼손 및 그에 따른 트라우마 및 애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죽음이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것을 전제로 신체의 훼손을 가운데 두고 죽음의 양상을 먼저 살펴본다. 신체 훼손이 심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에 상응하는 트라우마가 남으므로 그에 부응하는 애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여 좌정 처의 의미를 새롭게 읽어낸다.

2. <초공본풀이> 속 모자(母子)의 죽음과 좌정 그리고 애도

무속 의례에서 무당이 굿이나 독경 중에 부르는 노래가 무가¹⁴⁾다. 무

쪽; 김창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개와 공간 의미 고찰」, 『한국무속학』 제6집, 한국무속학회, 2003, 155-182쪽; 류효철,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연구: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116쪽; 이수자, 「무속의례의 꽃 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407-442쪽; 함명희, 「‘서천꽃밭’을 통해 본 제주인의 죽음관 - 산 자와 죽은 자의 공간 ‘서천꽃밭’」, 『탐라문화』 제75호, 77-129쪽.

13) 강명혜, 「제주도 신화 속 꽃의 의미 및 상징성」, 『온지논총』 제48집, 온지학회, 2016, 35-62쪽; 김현선·변남섭, 「구비문학에 나타난 꽃 원형」, 『구비문학연구』 제28집, 2009, 181-204쪽; 김혜미, 「구비설화 <불공으로 얻은 꽃>의 ‘밥’과 ‘꽃’ 화소를 통해 본 생명 구원과 신성 확보의 의미 -밥으로 구현되는 민담 속 생명 발현의 특수성-」, 『구비문학연구』, 한국구비문학회, 2021, 161-194쪽;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247쪽; 정제호, 「聖所의 확산으로 <이공본풀이> 다시 읽기」, 『고전문학연구』 제57집, 한국고전문학회, 2020, 89-112쪽; 정진희, 「제주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제7집, 국문학회, 181-197쪽; 최원오, 「한국 무속신화에서의 ‘웃음’의 기능과 위상: <이공본풀이>의 ‘웃음웃을꽃’ 신화소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53집, 겨레어문학회, 2014, 61-87쪽.

가는 제의를 하게 된 이유와 준비 과정과 신에 대한 찬(讚), 축원, 공수 등을 틀로 하여 진행된다. 본풀이는 무속 의례에서 모시는 신의 본(本)을 풀이하는 것으로 무속 의례 과정 중 구송(口誦)된다. 본풀이는 말하자면 의례(儀禮)에서 모시는 신에게 어떤 내력이 있는지 담고 있는 본풀이는 무속 의례 과정에 포함된 서사성을 갖춘 이야기다.

굿판의 청중은 의례 전반(全般)을 통해 마음속 망자를 떠나보내게 된다. 본풀이는 일반신 본풀이, 당신 본풀이, 조상본풀이로 나뉜다. 일반신 본풀이는 신이 좌정 과정을 담고 있다. 신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고 이후 어떤 신으로 좌정되었는지를 보여주므로 일반신 본풀이의 중심에는 죽음이 놓여 있다. 전체 굿판에서 본풀이는 신의 죽음과 좌정 과정을 서사로 풀이함으로써 청중이 죽음을 간접적으로 소환해 볼 수 있게 한다. 신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며 그 죽음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를 보며 타자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마주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맞닥뜨렸거나 맞닥뜨리게 될 실제 죽음으로부터의 트라우마를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제주도 큰굿에서 구송되는 <초공본풀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죽음 처리와 애도 방식을 살펴본다. <초공본풀이>는 아래의 내용을 경계로 한다.

천하 임정국 대감과 지하 김진국 부인이 불공과 시주로 자지맹왕 아기씨를 낳는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으로 들어온 승려가 자지맹왕 아기씨 머리를 만지고 간다. 딸이 삼 형제를 임신한 사실을 안 부모가 딸을 내쫓는다. 딸이 세 형제의 아버지를 찾아가 해산한다. 이후 성장한 세 형제가 과거 시험을 치른다. 형제는 과거에 붙었음에도 중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낙방하였다가 연주문을 쓰는 것으로 합격하게 된다. 연주문을 부셨다는 것을 구실로 세 형제의 어미인 자지맹왕 아기씨가 옥문에 구금되게 된다. 아버지를 찾아간 세 형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릴 방법을 알려준다. 아버지 말을 따라 굿을 한다. 옥

14) 강등학 등,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4쇄, 도서출판 월인, 2020년, 308쪽.

황상제가 세 형제의 사정을 알고 어머니를 살려준다. 이후 세 형제는 옥황으로 소환되어 삼시왕이 된다.¹⁵⁾

초공본풀이에서는 자지맹왕 아기씨와 아들들의 죽음을 살펴볼 수 있다. 자지맹왕 아기씨의 아들인 삼 형제의 죽음은 옥황상제에게 소환되는 지점으로 나타난다. 다른 세계에 소환되어 가는 것까지를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초공본풀이는 자지맹왕 아기씨의 죽음까지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지맹왕 아기씨가 죽는 지점은 깊은 곳에 앉았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아들들이 ‘어머니가 깊은 곳에 앉게 되어 살리려 한다’며 이를 통해 자지맹왕 아기씨가 지하 옥에 들어간 것이 죽음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자지맹왕 아기씨의 죽음¹⁶⁾은 아래와 같다.

신령스러운 산중으로 올라가 뱃나무 베어다가 나무를 베어다가 첫째 마디는 잘라 무악기를 만들어 놓고 둘째 마디는 연주문을 지어 매달고 셋째 마디는 세 토막의 애달픈 장구 만들고 흑 모래가 일어 백 모래가 되고 백 모래가 일더니 정철이 되어 정씨 대장장이 불러다가 하늘천자 아버지 본매 천국에 이르는 문(天門) 지어 놓고 어머니 본매 배옥상잔 만들어 놓고 신 칼 명도(明刀)를 왼쪽 세 번, 오른쪽 세 번 금세 만들어 하늘 같은 신공깃상 받아보면 낫는다. 삼성제라 곳을 하여 월랑달랑 하여가니 옥황(玉皇)이 인간에 변국(變國)이 났으니 삼관장 삼차사를 보내 어 알아 오도록 한다. 삼관장 삼체사 인간에 도입하여 “어찌 곳을 하느냐?”하니 “우리 어머니가 깊은 곳에 앉게 되어 살리려 하옵니다.” 하니, “너희 삼 형제 예사가 아니구나. 어머니 살려 잘 앉혀 바람 불어도 바람

15)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3쇄, 민속원, 2016에 수록된 김병호 본 <초공본풀이>를 정리한 것이다.

16) 이를 김명윤 구송본에서는 둘째 아들이 연주문을 부순 죄로 어머니가 옥문에 갇히게 되어 죽은 것으로 처리하며 죽음의 장면을 더 확장하여 명확히 한다. 다음과 같다; 아들이 간 두리차난 연주문이 문딱 부서지는구나. 연주문 부수운 죄로 아들들 대신 지네 어명을 심어단 옥문에 갇 갇치는구나..... 느네 어명 열두스촌 중문에 갇 갇쳐시메 살려오라. 그영호연 시성제가 간 어명을 살려오란;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3쇄, 민속원, 2016, 61쪽.

안 들고 비 와도 비 안 들 금법당을 지어 높이 앉혀 두고 너희들은 옥황으로 오거라. 벼슬을 시켜주마.” 그리하여 그때 올라간 삼 형제가 지금은 삼시왕이 되었다.¹⁷⁾

자지맹왕 아기씨의 죽음은 ‘깊은 곳에 앉았다’라는 아들들의 말을 통해 나타난다. 죽음에 이른 자지맹왕 아기씨는 아들들의 노력으로 이승에서 다한 생을 소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아들들은 자지맹왕 아기씨를 살리기 위해 굶을 한다. 하늘에 이르는 문을 만들어 두고 배옥상잔도 만들어 놓고 칼도 만들어 두는 등의 절차에 따라 굶이 이행된다. 이를 본 옥황상제가 삼 형제의 효심을 ‘예사가 아니’라고 하며 자지맹왕 아기씨를 ‘금법당에 앉혀 두고’ 삼 형제에게는 옥황으로 올라와 벼슬을 하라고 명한다. 그리하여 자지맹왕 아기씨는 금법당에 앉고 삼 형제는 하늘로 올라가 삼시왕이 된다.

자지맹왕 아기씨는 ‘깊은 곳에 앉은 것’으로 생의 끝을 맞이했다. 아들들은 옥황상제에게 소환되는 것으로 지계(地界)의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 산중에 들어가 어머니를 ‘살리려 한다’라는 아들들의 말에 따라 ‘깊은 곳에 앉게 된 것’을 죽음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지맹왕 아기씨의 죽음과 관련하여서는 ‘살려낸다’라는 아들들의 말과 함께 지상에서 생명력

17) 신임산증 도올라 썬사오기 물사오기 낭글 비여단 쳇동은 즐라단 연주문을 지어 들고 싯쳇동은 즐라단 삼동막이 서른장고를 멩글고 흑몰래를 일어가난 백몰래가 되어 백몰래를 일어가난 정철이 되어 정대장 불러다가 하늘천제 아방본매 천문을 지어 놓고 어명본매 배옥상잔 지어놓고 시왕대번지 외우 시번 느다 시번 대번지 지영 하늘같은 신공싯상 받아보라 그계 낫나 삼성제라 굶을 출령 알랑달랑 혀여가난 옥황이선 인간에 백국이 나시니 삼관장 삼체스를 보내명 알양 오라. 삼관장 삼체슨 인간이 도입혀여 미신 일로 굶을 혀느냐? 우리 어명이 깊은 곳엘 맞아시란, 살려오젠 혀염쑤다. 느네 삼성젠 비멘이 아니여, 어명이랑 살려당 잘 앓경 브름불어도 브름 안들꼭 비오라도 비 아니들 금법당을 짓영 도왓저두영 느네들은 옥황으로 도올라오라 배실을 시켜주마 기영혀연 그때 올라간 삼성제가 금시상이 삼시왕으로 들어섰수다;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3쇄, 민속원, 2016, 70쪽.

을 잃은 몸이 되돌아왔음을 읽어낼 수 있다.

아들들의 경우 하늘로 올라가 그대로 삼시왕이 되는 것으로 처리된다. 이를 통해 생명력을 가진 몸의 회복은 짐작할 수 없다. 몸의 소실과 회복을 보여준 자지맹왕 아기씨의 좌정 처(處)는 지상의 금법당으로, 아들들의 좌정 처(處)는 옥황이 있는 천계로 설정되어 있다. 자지맹왕 아기씨의 경우 생을 다한 몸을 구체적으로 되살려 내는 과정이 나타난다. 하지만 아들들은 그 과정이 없다. 이는 죽음 양상에 따라 트라우마와 애도의 층위가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지맹왕 아기씨의 죽음은 깊은 곳에 앓은 것으로 처리된다. 이때 신체 훼손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지맹왕 아기씨의 죽음은 단지 몸의 상실로만 나타난다. ‘깊은 곳에 앓은 것’으로 기술되는 자지맹왕 아기씨의 죽음에서는 몸이 작위적으로 훼손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몸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들들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아들들의 죽음은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 옥황으로 가는 것으로 갈무리되기 때문이다.

아들들과 자지맹왕 아기씨의 죽음이 다른 것은 죽은 몸이 되살아나는가 아닌가 하는 데 있다. 그 중심에는 죽은 자를 되살려 내는 절차가 있다. 애도와 관련하여 라캉은 굿과 같은 형식적 의례, 말하자면 언어적 질서로 구현한 ‘죽음의 선언이 필요하다’¹⁸⁾고 하였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인 죽음을 상징계의 체계로 풀어내어 망자의 상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애도가 가능하다는’¹⁹⁾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라캉식 애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죽은 자가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

18) Jacques Lacan, 1977, *Desire and the Interpretation of Desire in Hamlet*(Jacques-Alain Miller, edit. James Hulbert, trans.), Yale French Studies 55/56, Yale University Press, Connecticut, pp. 36-38.

19) Jacques Lacan, 1977, *Desire and the Interpretation of Desire in Hamlet*(Jacques-Alain Miller, edit. James Hulbert, trans.), Yale French Studies 55/56, Yale University Press, Connecticut, pp. 36-38.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초공본풀이>에서는 굿을 통해 자지맹왕 아기씨를 살려내게 되는 것은 망자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이 경우, 애도는 성립불가능 한 것이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 환생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해보면 여기에서의 되살림은 죽음이 있었음을 명백하게 하는 선언이 된다. 되살림은 죽음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²⁰⁾이다. 죽음이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즉각적 애도라고 한다면 자지맹왕 아기씨의 죽음 장면에서는 즉각적 애도가 발생한다. 이후 자지맹왕 아기씨를 살리는 과정에서는 지연된 애도, 말하자면 망자의 죽음이나 망자에 대한 기억을 붙들고 의례를 하는 등이 일어난다.

자지맹왕 아기씨의 죽음을 죽음으로 만들어 둔 후 환생이라는 절차로 자지맹왕 아기씨를 되살려 내는 가운데 굿을 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굿은 망자를 떠나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으로 읽힐 수 있게 된다. 즉, <초공본풀이>에서 자지맹왕 아기씨를 환생시키는 굿은 그 자체로 '망자를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떠나보낸다'는 의미의 애도 성립에 필요한 과정이면서 망자를 부활시키는 것을 통해 즉각적 애도의 무화(無化)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가적인 애도의 성립은 자지맹왕 아기씨가 좌정 터로 자리 잡게 된 곳인 지계(地界)의 금법당을 새롭게 읽어볼 수 있는 틈입 지점이 되어준다.

지계에서 몸이 소거된 적 있는 자지맹왕 아기씨가 다시 생(生)을 부여받게 된 몸은 상징화된 몸이다. 그러하기에 자지맹왕 아기씨는 옥황으로 곧바로 소환되는 아들들과 달리 지상의 금법당에 모셔지게 된다. 이는 망자를 재생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 나타난다. 그리하여 자지맹왕 아

20) 관련하여서는 장지영, 「드라마 <지옥>과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의 죽음과 애도」, 『국제어문』 제98집, 국제어문학회, 2023, 677-697쪽.에서 달리 논한 바 있다.

기씨가 굿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소환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명확하게 하게 된다.

프로이트는 '망자에 대한 기억을 내재화함으로써 망자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멜랑콜리로 망자에 대한 리비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애도²¹⁾로 본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죽음이 남긴 트라우마는 애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극복할 수 있다. 라강은 이를 두고 '애도가 굿과 같은 상징적 질서를 통해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가능²²⁾하다고 설명한다. 죽음이라고 하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을 산자들의 삶 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상실감을 극복하여야 죽음으로부터의 트라우마를 벗어나 애도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굿이라는 상징계적 질서를 통해 망자를 분리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망자가 산 자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환생한 자지맹왕 아기씨는 천계로 가지 않고 지상에서 육신을 얻어 금법당 높은 곳에 모셔진다. 환생하기는 하지만 자지맹왕 아기씨는 지계(地界)에서 신으로 자리 잡는다. 그에 따라 자지맹왕 아기씨의 환생은 온전한 환생이라기보다는 지상의 이방인으로 재탄생한 것으로 읽힐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인간이었던 자지맹왕 아기씨가 목숨을 다하는 순간은 '깊은 곳에 앉은' 지점으로 한정될 수 있게 된다. 그 순간은 죽음과 동시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즉각적 애도의 지점²³⁾으로 읽힐 수 있게 된다.

21)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박찬부 역, 「우울증과 우울」,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03, 243-248쪽.

22) Jacques Lacan, 1977, *Desire and the Interpretation of Desire in Hamlet*(Jacques-Alain Miller, edit. James Hulbert, trans.), Yale French Studies 55/56, Yale University Press, Connecticut, pp. 36-38.

23) 프로이트나 라강은 망자 사후 산 자들이 망자의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애도를 기술한다. 애도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감정으로 죽음이 남긴 트라우마의 회복 과정을 보여준다면, 애도의 성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죽음이 실제하였는지 아닌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프로이트와 라강은 죽음 이후의 과정에 집중하여 죽음이 일어나고 산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는 상대적으로 주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데리다는 이 지점에 주

자지맹왕 아기씨가 인간으로 온전히 환생한 것이 아니게 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생애가 종결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죽음이 성립된 지점에서 죽음의 수용이 찰나적으로 일어났음을 보여준다²⁴⁾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공본풀이>에서는 자지맹왕 아기씨의 몸이 생명력을 잃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지점과 곳을 통해 되살아나는 지점이 동시에 나타난다. 죽음의 지점만을 기술하는 전자에서는 죽는 순간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곧바로 이행되는 즉각적 애도²⁵⁾를 읽어낼 수 있다. 후자에서는 어머니가 신으로 좌정되어 어머니의 죽음이 상징계적 질서로 정리되고, 그로써 산 자들이 망자를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야 하는 과정으로서의 애도, 말하자면 지연된 애도를 읽어낼 수 있다. 이때의 애도는 역설적이게도 아들들이 어머니를 살려내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자지맹왕 아기씨의 죽음에서는 즉각적 애도와 지연된 애도가 함께 나타난다. 지연된 애도가 몸의 사라짐 및 재생을 통한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면 자지맹왕 아기씨가 지상에서 다시 몸을 얻게 되고 이후 지계에서 좌정 처를 잡게 하는 과정 전반 또한 지연된 애도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죽음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즉각적 애도라고 한다면 아들들의 죽음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즉각적 애도다.

아들들의 경우 그 죽음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옥황으로 오라.’라

목하여 죽음이 발생하는 순간 애도가 이루어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자크 데리다, 진태원 역, 『마르크스의 유령들』, 그린비, 2014, 26-27쪽.

24) 죽음의 지점과 관련하여서는 강지영, 「드라마 <지옥>과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의 죽음과 애도」, 『국제어문』 제98집, 국제어문학회, 2023, 677-697쪽에서 상론한다.

25) 이와 관련하여 데리다는 망자가 목숨을 다하는 순간 망자를 생명을 잃은 존재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서의 즉각적 애도를 말한 바 있다. 망자의 죽음을 내재화하거나 언어적 질서로 상징화하기 이전에 죽음이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로 애도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라캉이나 프로이트 등의 애도 성공과 관련하여 데리다는 이러한 즉각적 애도를 ‘실패해야 성공하는 애도’로 기술한다; 자크 데리다, 진태원 역, 『마르크스의 유령들』, 그린비, 2014, 26-27쪽.

는 옥황상제의 말에 옥황으로 가서 벼슬을 받았다는 것 외에 지상에서의 아들들의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는 없다. 죽음을 지계의 존재가 지계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삼시왕의 소실은 죽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삼시왕은 사라지는 것으로 죽음의 지점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애도가 죽음이 있고 그로 인한 상실감을 내보이는 산 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초공본풀이>에서 내보이는 아들들의 사라짐과 관련하여서는 죽은 자에 대한 상실감을 이르는 통상의 애도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죽음이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의 즉각적 애도는 명확히 나타난다.

삼시왕은 지상에서 사라져 옥황의 소환에 따라 옥황으로 올라가 좌정하여 굿에서의 힘을 발휘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시선’²⁶⁾을 가진 존재로 자리하게 된다. 이후 삼시왕은 굿하는 방식을 처음 시작하여 심방의 시조신이 된 무조신으로서 심방의 무업(巫業)을 수호하는 존재로 남는다. 혼령과 관련하여 심방이 통상의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삼시왕이 ‘응시하는 이는 있으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²⁷⁾으로서의 면감효과²⁷⁾를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어머니인 자지맹왕 아기씨와 삼시왕의 죽음은 생명을 다한 신체가 제시되는지 아닌지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차이를 보인다. 어머니는 사라진 신체가 의례를 통해 부활하고 이후 지상의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삼시왕은 굿 등을 통한 라강식 애도 과정에 따른 실체화된 애도의 대상화 과정을 없이 곧바로 신으로 좌정된다. 애도 대상으로서의 몸의 부활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육화된 환생 후의 자지맹왕 아기씨의 지계(地界) 좌정과 죽음과 함께 천계(天界)에서 좌정하는 아들들의 좌정 처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읽어볼 틈입 지점이 되어

26) 자크 데리다, 진태원 역, 『마르크스의 유령들』, 그린비, 2014, 26-27쪽.

27) 자크 데리다, 진태원 역, 『마르크스의 유령들』, 그린비, 2014, 26-27쪽.

준다.

본풀이에서는 죽은 존재를 다른 계로 좌정시키고 그들을 중심으로 굿이 진행되게 하는 것은 굿판에서의 애도가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는다. 본풀이는 굿판에서 구송되는 것으로 죽음이 남기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삶의 한 과정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판을 만들어 가고 있다. <초공본풀이>에서는 몸이 이승에서 사라지는 것에 의한 죽음만 나타나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자지맹왕 아기씨의 몸은 지계로 돌아오나 아들들의 몸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에 따라 어머니는 지계에 실재하는 신으로 애도 대상이 되어 놓이게 된다. 아들들은 시선만 있는 존재로 천상에 좌정하여 애도의 대상으로만 남게 된다. 죽음 양상에 따라 트라우마와 애도의 층위 또한 달라질 수 있다면 몸이 훼손되는 죽음에서의 트라우마와 애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공본풀이>를 통해 다음 논의를 이어간다.

3. <이공본풀이> 속 원강아미의 죽음과 애도 터전으로서의 서천 꽃밭

<초공본풀이>에서 나타나는 죽음에서는 몸이 훼손되어 나타나는 죽음과 그에 따르는 상실감인 애도를 연관해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찾아볼 수 없다. 자지맹왕 모자가 죽었다는 사실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생명력을 가진 몸이 훼손되어 목숨이 끊기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이공본풀이>를 살펴보며 그에 따른 트라우마와 애도를 읽어나가 본다. <이공본풀이>는 아래 내용을 경개로 한다.

슬하에 자녀가 없었던 김정국과 임정국이 불공을 드린다. 김정국은 아들 사라도령을, 임정국은 딸 원강아미를 낳아 두 사람을 혼인시킨다.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의 꽃감관 역할을 명받아 두 사람은 길을 떠나게 된다. 임신 중이던 원강아미는 사라도령의 여정에 함께 할 수 없게 된다. 사라도령이 혼자 서천꽃밭으로 떠나고 원강아미는 장마에게 맡겨진다. 원강아미를 겁탈하려 하는 장자의 위협을 피해 원강아미는 아들 할락궁이를 출산한다. 장자의 집에서 노역에 시달리던 할랑궁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꽃감관인 사라도령이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 아버지를 찾아가 아들임을 증명한 할락궁이는 도환생꽃으로 어머니를 환생시키고 수레멜망약심꽃으로 장자를 벌하라는 명을 받는다. 장자의 집으로 돌아온 할락궁이가 장자 가족을 죽이고 어머니의 뼈를 모아 재생시킨 후 어머니와 함께 서천 꽃밭으로 간다. 원강아미는 저승어명이 되고 할랑궁이는 꽃감관이 된다.²⁸⁾

<이공본풀이>에서 주목해 볼 지점은 원강아미의 죽음과 할락궁이가 원강아미를 되살려내는 부분이다. 먼저 원강아미의 죽음을 살펴본다.

이제 이 년을 죽여야겠다. 앞 발에 가서 장검 걸고 뒷발에 가서 형틀을 걸어라. 사형집행자도 불러라. 형을 알리는 숙청기도 쫓아라. 원강아미 죽이려 서두르며 형틀에 올려놓고 첫 고문을 하며 형틀에서 틀며 “똑바로 말하라.” “예, 바른말을 해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다짐을 받는데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니 목에 환도(還刀)를 가져다가 쟁쟁게 잘라 몸통이며 머리며 모두 청대 밭으로 가져다가 놓아버리니²⁹⁾

죽음은 타인이 나와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충

28)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3쇄, 민속원, 2016에 수록된 이공본풀이를 정리한 것이다.

29) 이젠 이 년을 죽이키여, 앞 발디 강 장검걸라 뒷 발디 강 버텅걸라 즈강놈도 불러라 숙청기도 꼬조우라 원강택일 죽일팔로 돌루명, 성틀에 올려종완 초택임 와 드득기 틀명, “느 바른 말을 해라” “예, 바른 말을 ㄱ다로 그 말이우다.” 이택임을 받아도, 삼택임을 받아도 “그 말이우덴” 허난 이젠 애개길 환도레 옷단 확기 끈찬, 몸똥이명 대강이명 문딱 청대왓데레 옷단 드리쳐부난,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3쇄, 민속원, 2016, 79쪽.

격을 남긴다. 그로 인해 산 자의 마음에서는 트라우마가 발생하게 된다. 상기 묘사에서 원강아미의 몸은 복구할 수 없이 훼손된다. <이공본풀이>에서 이토록 잔인하게 묘사되는 원강아미의 죽음은 ‘죽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배치되어 있다. 환도에 의해 원강아미의 몸이 찢어지는 장면은 원강아미의 생명력이 다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 이후 원강아미의 몸은 밭에 뿌려진다. 그로써 이 장면은 이 서사에 노출된 이들에게 죽음이 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되어 놓이게 된다.

원강아미의 목숨이 끊어지는 이와 같은 묘사는 굿판의 청중이 원강아미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만든다. 서사를 통하여 망자의 몸이 생명력을 잃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죽음에 노출됨으로써 산 자로서의 청중이 타자의 사라짐을 죽음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프로이트나 라캉이 말하는 기억 속 타자를 소거하는 것과는 다른 층위의 죽음이다. 실재하던 대상이 실체가 있음에도 실제로 메워지지 않는 데서 오는 ‘표현 불가능함’³⁰⁾을 서사 내 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원강아미의 죽음은 굿판에서 구송(口誦)된다. 그로써 굿판은 청중이 죽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장을 마련하게 된다. 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굿에서 잔인한 죽음에 노출되어 자신도 모르게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게 되기 때문이다. 망자를 떠나보내는 일은 망자가 나와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된

30) 이를 니콜라스 아브라함과 마리아 토록은 입사(injection)와 합사(incorporation)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입사는 죽음이 있었음을 상징화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합사는 망자가 떠났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산 자가 자신만의 은밀한 지하 납골당에 망자를 산 자처럼 안치해 두는 것을 말한다. 죽음이 발생하였으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망자가 생명력을 다하였음을 서술하지 못하는 데서 입사 과정에서 채워져야 하는 결핍감이 해소되지 않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합사가 일어나는데 망자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망자를 있던 그대로 지하 납골당에 안치하는 데서 오는 있음과 없음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망자가 목숨을 잃어가는 장면 묘사는 이 채울 수 없음을 서사 구조 내의 묘사를 통해 구현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이는 죽음이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로 전체 애도를 설명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이후의 애도의 층위는 개별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에 따라 또는 즉각적인 것과 지연된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연된 애도가 망자 사후 망자에 대한 상실감은 물론, 그와 함께 발생하는 슬픔, 부정, 분노의 등의 감정을 느끼고 망자를 마음으로부터 떠나 보내는 과정을 이룬다고 한다면, 이 지점에서의 애도는 망자가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의 애도다. 즉, 이 장면에서는 죽는 순간 이루어지는 즉각적 애도³¹⁾를 읽어낼 수 있다.

죽음이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애도가 시작된다. 그렇다면 죽음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통해 죽음의 수용 지점을 짚어보는 것이 개인적이고 내밀한 애도로의 진입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장면에서는 죽음 그 자체를 묘사함으로써 고통의 청중이 망자가 숨을 쉴 수 없는 자가 되었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공본풀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공본풀이>에서는 환도에 잘려 나가는 것이 묘사됨으로서 죽음이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는 점이고, 육체가 잔혹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은 원강아미는 할락궁이에 의해 되살아나게 된다. 아래의 양상을 통해 또 다른 층위의 애도를 읽어낼 수 있다.

우리 어머니 죽은 곳을 가리키라. 가리키는 곳을 보니 청대 밭이라.
청대 밭에 가 보니 어머니 살은 모두 녹아 붙고 뼈만 앙상하였으니 차

31) 테리다는 망자에 대한 기억을 보유하여 그 기억이 산 자의 삶을 침해하는 것이 애도를 실패하게 만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죽음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애도는 통상적인 애도 개념에서는 애도 실패로 받아들여지기 쉬운데, 죽음이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지점이 있음을 수용하는 지점이 있음에 대한 인정을 테리다식 애도라고 한다면 원강아미의 죽음은 그 자체로 테리다식 애도 성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장면에서는 죽는 장면이 다소 장황하게 묘사되고 있으므로 <초공본풀이>의 삼시왕의 죽음과는 그 즉각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후행 연구에서 모색해 나가보아야 한다.

꼭차꼭 주워놓아 뼈 오를 꽃 살 오를 꽃 오장육부 그럴 꽃 모두 주어놓아 때죽나무 회초리로 삼세번을 짹째게 후려치니 “아이고, 애달픈 아가. 나는 내가 잠을 너무 잤구나.” 하며 일어나니 할락궁이가 어머니를 모셔 막내딸은 고용원으로 데려가고 서천 꽃밭으로 아버지를 찾아 들어가 꽃밭에 물 주는 아기들은 원강아미가 저승 어머니로 들어서서 기르고 사라도령은 저승 아버지 되어 살림하고 할락궁이는 아버지 일을 물려받아 꽃감관이 되니 그 법으로 오늘날 할아버지 살던 데는 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살던 데는 아들이 삽니다.³²⁾

돌아온 할락궁이가 원강아미를 살리는 위 장면에서는 몸의 재생이 자세히 묘사된다. 이를 통해 <이공본풀이>는 몸이 온전히 사라지는 것을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몸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정신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 자들이 망자의 몸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그들의 혼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판에서의 죽음이 몸의 생명력이 다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의 훼손 없이 죽은 자지맹왕 아기씨와 달리 온몸이 찢겨 죽은 원강아미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서천 꽃밭에서 물주는 아이들의 어머니인 저승 어머니가 된다. 서천 꽃밭은 죽음과 삶 사이에 놓여 있는 공간이다. 몸의 복원과 함께 되살아나게 되었기는 하나 원강아미는 곧바로 이

32) 우리 어멍 죽은 덜 그리치라. 즈리치는 딴 청대왓이라. 청대왓덜 간 보난 어멍은 술은 맨딱 녹아불고, 팡만 술그랑 흥여시난, ㄹ근ㄹ근 주워놓완, 팡오를꽃, 술오를꽃 오장육부 그리 ㄹ, 맨딱 주워놓완 죽냥회추리로 삼시번을 했 후리난, “에이 구! 설론 얘기야. 난 봄 즈이난 너미 자지엇저” 흥명, 일어나난. 한락등인 어멍을 모사얏고, 말жат뜰애긴 스완으로 드란 서천꽃밭디 아방츄산 들어간. 꽃밭디 물주는 아기들은 원강아미가 저싱 어멍으로 들어산 그들루고 또 사라도령은 저싱 아방이 되연, 살림을 흥고, 한락등인 아방물림 흥연 꽃감관이 되난 그 법으로 금시상에 할오방이 살단 딴 아방이 살고 아방이 살단 딴 아들이 삽네다.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3쇄, 민속원, 2016, 82쪽.

승과 저승 중간에서 꽃밭에 물을 주는 아이들의 저승 어머니로 간다. 자지맹왕 아기씨가 본래 있던 지계(地界)로 돌아와 신으로 좌정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천 꽃밭은 이승도 온전한 저승도 중간지대다. 원강아미가 지계 존재로 온전히 부활하였다면 원강아미의 좌정 터는 서천 꽃밭이 아닌 지계로 설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원강아미는 치유의 힘이 깃든 서천 꽃밭에 좌정했다. 몸이 훼손된 채 발생한 죽음과 그러한 현상이 드러나지 않은 죽음은 동일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트라우마의 작동과 애도 방식 또한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좌정 터의 차이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죽은 몸을 살려 신으로의 좌정시키는 과정 또한 상상계의, 지연된 애도 중 하나라고 한다면 원강아미와 자지맹왕 아기씨의 환생은 그러한 측면에서는 동일한 애도 범주에 있다. 하지만 다시금 살아나게 된 원강아미가 지계에서 벗어나, 일종의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는 서천 꽃밭에서 좌정한다는 점에서 원강아미와 자지맹왕 아기씨에 대한 애도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좌정을 통해 신이 됨으로써 자지맹왕 아기씨도 결국에는 지계의 이방인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몸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은 자지맹왕 아기씨가 좌정한 터는 본래 있던 지계(地界)이고 원강아미는 지계를 벗어나 서천 꽃밭에서 좌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때죽나무 회초리에 의해 훼손된 몸이 복구된 이후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말함으로써 원강아미는 환생을 알려온다. 시신의 훼손이 없었던 <초공본풀이>에서와 달리 <이공본풀이>는 원강아미를 청대 밭에 흩뿌려진 시신을 복원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로써 죽음이 남긴 트라우마를 해소할 수 있게 한다. 환생은 그리하여 지계에서의 원강아미의 죽음은 원강아미가 살해되는 그 장면에서 일단락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그를 통해 원강아미가 죽는 장면에서 죽음과 애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즉각적 애도의 해석 지점을 남겨둔다.

몸의 형태를 온전히 보전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 원강아미는 지계

의 육화된 존재가 아닌 중간지대의 상징화된 존재로 재탄생한다. <이공본풀이>에서 원강아미의 환생 터가 이승과 저승의 중간지점이고 환생이 곳이 아닌 신비로운 힘을 가진 꽃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환생은 <초공본풀이>에서의 환생과는 같다고 할 수 없다. 몸을 되찾은 후 원강아미가 서천 꽃밭으로 이동함으로써 그 부활이 서천 꽃밭에서의 신으로의 좌정을 위한 존재로의 탄생으로 비치게 되기 때문이다.

서천 꽃밭이 ‘산 자와 죽은 자의 공간’³³⁾이나 ‘죽은 자가 생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신성한 꽃이 죽음을 극복하게 해주는 죽음과 삶의 매개로서의 공간’³⁴⁾, ‘비현실적인 선(善)의 공간이자 생명의 공간’³⁵⁾으로 해석되어왔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때죽나무로 시신을 때려 죽은 자를 살려낸 원강아미를 극락도 지옥도 아닌 서천 꽃밭의 저승 어머니로 좌정시킨 것은 서사적 장치에 의한 상징적 애도로 읽을 수 있다. 서천 꽃밭에 죽은 이를 살게 하거나 병을 고치는 약수와 신비한 꽃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천 꽃밭의 내재적 상징성이 원강아미의 신체 훼손에 노출되는 데서 마주할 수 있는 트라우마를 완화할 수 있는 완충 지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천서역국은 ‘인간계, 저승계, 천상계와 구별되는 특수 이계(異界)’³⁶⁾로 설정되어 있다. 이곳에서 ‘생의 원론적 문제가 다루어진다’³⁷⁾라고 한다면 신체의 죽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공본풀이>에서의 원강아미

33) 함명희, 「‘서천꽃밭’을 통해 본 제주인의 죽음관 - 산 자와 죽은 자의 공간 ‘서천꽃밭’」, 『탐라문화』 제7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24, 77-129쪽.

34) 강진옥, 「무속 여성 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교수학술제』 제13집,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2005, 26쪽.

35) 김창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개와 공간 의미 고찰」, 『한국무속학』 제6집, 한국무속학회, 2003, 155-182쪽.

36) 이수자, 「무속의례의 꽃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427쪽.

37) 이수자, 「무속의례의 꽃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427쪽.

의 죽음은 신체를 온전히 하는 것이 생이 깃들게 하는 전제가 됨을 보여 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천 꽃밭은 훼손된 신체로부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애도 공간으로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실제 굿 현장에서의 무화(巫花) 등으로 상징화 되어 나타³⁸⁾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체의 극심한 훼손은 그만큼 강한 트라우마를 남긴다. 녹아 붙은 시체를 환생시키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은 문자로 하는 상징화된 애도다. 본풀이에서 원강아미를 환생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망자에 대한 느린 애도일 수 있다. 몸이 해체되어 죽음에 이른 원강아미의 좌정 터를 서천 꽃밭으로 배치하는 <이공본풀이>에서의 이 느린 애도는 지계(地界)에서의 육체의 사라짐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원강아미의 죽음이 자지맹왕 아기씨의 죽음과는 다른 것임을 분명히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죽음 양상의 차이는 트라우마와 애도에도 차이를 가져온다. <초공본풀이>에서도 <이공본풀이>에서도 죽음의 지점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죽음이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즉각적 애도를 읽어낼 수 있었다. 몸의 훼손이 없이 죽음만 나타난 자지맹왕 아기씨는 굿을 통해 생을 되찾았다. 이후 자지맹왕 아기씨는 지상의 신으로 좌정한다. 몸의 훼손이 나타난 원강아미는 지옥과 극락의 중간지대인 서천 꽃밭의 저승 어머니로 좌정하였다. 죽음만 나타났을 뿐 환생은 보이지 않은 자지맹왕 아기씨의 아들들은 옥황이 있는 천계에 좌정하였다.

정리하면 신체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는 <초공본풀이>의 자지맹왕 아기씨는 의례를 통해 지계의 몸을 되찾은 것으로 지계에 좌정하였다. 아들들의 정성스러운 의례에 따른 자지맹왕 아기씨의 부활은 자지맹왕 아기씨에 대한 서사적 차원에서의 상징적 애도가 가능하게 하였다. 의례

38) 관련하여 실제 굿판이나 놀이 현장을 통해 확장해나가는 것으로 애도의 층위를 세분화하고자 한다.

등을 통한 서사적 부활이 나타나지 않은 아들들은 옥황에 올라가는 것으로, 죽음 그 자체로 애도가 성립되는 즉각적 애도만을 보여주었다. 심각한 신체 훼손이 나타나는 <이공본풀이>의 원강아미의 죽음은 그 자체로 상당한 트라우마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공본풀이>는 서사적 장치를 통해 부활시킨 원강아미를 치유력과 생명력이 깃든 상징적 공간인 서천 꽃밭에 좌정하게 함으로써 서천 꽃밭을 또 하나의 애도 터전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4. 결론

망자의 죽음이 산 자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한다면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죽음이라는 선행 사건이 있고 산 자들은 타자의 죽음을 통해 트라우마가 작동하게 되는 지점을 마주하게 된다는 시각을 견지하여 본풀이 속 죽음을 살펴보았다. <초공본풀이>와 <이공본풀이>에 나타나는 죽음의 세 양상을 살펴 죽음은 물론 그에 따른 트라우마와 애도 또한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임을 읽어냈다.

죽음 이후 일어나는 상실감의 정상적 극복 과정을 애도라고 한다면 애도는 성패로 나누어볼 것이 아니라, 신체의 죽음이 성립되었음을 받아들이는 즉각적 애도와 산 자의 마음에서 망자를 떠나보내는 지연된 애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여 <초공본풀이>의 모자와 <이공본풀이>의 원강아미의 죽음을 새롭게 살펴보았다.

<초공본풀이>의 자지맹왕 아기씨의 죽음을 중심으로 ‘깊은 곳에서 자리 잡는 지점’이라고 기술된, 죽음이 일어난 지점에서 즉각적 애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석했다. 곳을 통해 어머니를 되살려내고 신으로 좌정시키

는 지점에서 느린 애도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초공본풀이>에서의 자지맹왕 아기씨는 몸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죽었다가 그대로 온전히 환생한다. 이후 자지맹왕 아기씨는 금법당에 모셔져 당신(堂神)으로 좌정하는데, 좌정 터를 지계(地界)로 정한 것을 생을 다시 얻음에 따른 애도가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육황상제의 명을 받아 천계(天界)로 가는 것으로 죽음이 처리된 아들들에게서는 몸의 훼손이나 소거는 물론 환생도 나타나지 않는다. 육신의 죽음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므로 아들들의 죽음은 생이 다하게 된 것으로만 남겨지게 된다. 이를 죽음과 동시에 애도가 이루어지는 즉각적 애도로 보고, 그에 따라 아들들에 대한 애도는 이행되었다고 읽어냈다. 그로써 아들들의 좌정 터는 천계(天界)로 설정되었다고 보았다. 아들들의 죽음이 남기는 트라우마는 몸이 죽음에 이른 장면을 보이는 자지맹왕 아기씨 죽음보다는 강하게 드러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몸의 소거와 회복에 따른 죽음으로부터의 트라우마의 차이가 지계(地界)와 천계(天啓)라는 좌정 터 차이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좌정 터의 의미 해석은 망자의 상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의례적, 심리적으로 처리하는 지점에 따라 살펴볼 수 있는 즉각적 애도와 지연된 애도를 읽어볼 수 있는 한 지점이 되어줄 수 있다.

<이공본풀이>의 원강아미는 몸이 훼손되어 죽는다. 찢겨 흩뿌려진 원강아미의 몸은 때죽나무 회초리에 맞아 되살아난다. <이공본풀이>에서는 원강아미의 죽음 장면이 <초공본풀이>에서와 다르게 장황하게 묘사된다. 이 부분에서 죽음에 따른 애도의 지점을 동일한 범주로 둘 수 없다고 보고 죽음과 애도를 새롭게 읽어보았다.

원강아미를 재생시키는 이 지점에서는 지연된 애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원강아미는 훼손된 몸을 회복한 후 지옥과 극락의 중간지대인 서천 꽃밭에서 저승 어미로 좌정한다. 이 좌정에서 몸이 훼손되어 죽음에 이른 망자에 대한 애도 층위가 그러하지 않은 자지맹왕 아기씨나 몸의

죽음에 관한 지점이 기술되지 않은 아들들에 대한 애도의 층위와 동일할 수 없음을 읽어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친 꽃밭은 또 하나의 애도 터전으로 해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참고문헌

- 강등학 등,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4쇄, 도서출판 월인, 2020년, 308쪽.
- 강명혜, 「제주도 신화 속 꽃의 의미 및 상징성」, 『온지논총』 제48집, 온지학회, 2016, 35-62쪽.
- 강지연, 「제주도 서사무가 <이공본풀이>에서의 ‘분노’의 감성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62집, 민족문학사연구소, 제62집, 159-188쪽.
- 강지영, 「함흥본 <바리데기>에 나타나는 딸들의 자리 잡기」, 『우리어문연구』 제80집, 우리어문학회, 2024, 385-412쪽.
- _____, 「드라마 <지옥>과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의 죽음과 애도」, 『국제어문』 제98집, 국제어문학회, 2023, 677-697쪽.
- _____, 「심청·효·데리다 - 효와 효행의 구분과 해체를 통한 <심청전> 연구-」,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1-214쪽.
- 강진옥, 「무속 여성 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교수학술제』 제13집,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2005, 17-39쪽.
- 고은영, 「모순된 서사의 제의적 반영 -<삼승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41집, 한국무속학회, 2020, 123-146쪽.
- 김진영, 「안락국태자전승의 무가적 전개: <지림사연기문> 과 <이공본풀이> 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2집, 423-449쪽, 한국고소설학회, 1996, 423-449쪽.
- 김창일, 「무속 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한국무속학회, 2002, 175-200쪽.
- _____,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개와 공간 의미 고찰」, 『한국무속학』 제6집, 한국무속학회, 2003, 155-182쪽.

- 김혜미, 「구비설화 <불공으로 얻은 꽃>의 ‘밥’과 ‘꽃’ 화소를 통해 본 생명 구원과 신성 확보의 의미 -밥으로 구현되는 민담 속 생명 발현의 특수성-», 『구비문학연구』, 한국구비문학학회, 2021, 161-194쪽.
- 김현선,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413-459쪽.
- 김현선·변남섭, 「구비문학에 나타난 꽃 원형」, 『구비문학연구』 제28집, 2009, 181-204쪽.
- 류정월, 「종교적 영웅 서사로서 <초공본풀이> 연구—무조신(巫祖神)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4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211-239쪽.
- 류효철,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연구: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116쪽.
- 사재동, 「<안락국전>의 연구」, 『어문연구』 제13집, 충남대학교 문리과학대학 어문연구회, 1984, 21-43쪽.
- 서대석, 『무가문학의 세계』, 집문당, 2011, 183-199쪽.
- _____, 「서사무가 연구: 설화, 소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9, 1-175쪽.
-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비속함과 성스러움」, 『고전문학연구』 제42집, 한국고전문학회, 2012, 169-193쪽.
- _____, 「여성 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 이공, 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233-257쪽.
- _____, 「<초공본풀이>의 초월공간과 중심공간」, 『탐라문화』 제36집, 제주도 탐라문화연구소, 2010, 85-110쪽.
- 신호림, 「함경도 서사무가 <도량선배청정각시>에 나타난 희생의 성격과 제의적 의미」, 『고전과해석』 제33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21, 35-64쪽.

- _____,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기호학적 의미」, 『기호학 연구』 제46집, 한국기호학회, 2016, 94-123쪽.
- 양용준,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통과의례적 의미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66쪽.
- 염원희, 「무속신화의 여신 수난과 신 직능의 상관성 연구」, 『한국무속학』 제20집, 한국무속학회, 2010, 305-333쪽.
- 오세정, 「<도량선비 청정각시>의 서사 구조와 죽음의 의미」, 『한국무속학』 제45집, 한국무속학회, 2022, 117-145쪽.
- 윤교임, 「여성영웅신화연구: 초공본풀이·삼공본풀이·세경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6, 1-106쪽.
- 윤준섭, 「<도량선비청정각시>에 나타난 청정각시 죽음의 의미」, 『고전 문학연구』 제53집, 한국고전문학회, 2018, 233-270쪽.
- 이경하,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51-180쪽.
- _____, 「<초공본풀이>와 <思松金>의 인물 관계와 그 의미」, 『한국무속학』 제37집, 2017, 199-220쪽.
- 이수자,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서사문학적 변용과 그 의의 -고소설 <안락국전>의 소재적 원천과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을 곁다려」, 『구비문학연구』 제67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22, 135-208쪽.
- _____, 「무속의례의 꽃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407-442쪽.
- _____,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247쪽.
- 이지영, 「무속신화에 나타난 救藥모티프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427-458쪽.
- 자크 데리다, 진태원 역, 『마르크스의 유행들』, 그린비, 2014, 26-27쪽.
- 전주희, 「제주도 무구 ‘삼맹두’를 통해 본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 『민속

- 학연구』 제29집, 2011, 5-28쪽.
- 정제호, 「聖所의 확산으로 <이공본풀이> 다시 읽기」, 『고전문학연구』 제57집, 한국고전문학회, 2020, 89-112쪽.
- _____, 「<도량선비 청정각시>에 나타난 고난의 의미와 제의적 기능」, 『고전과해석』 제23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7, 65-88쪽.
- 정진희 「제주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제7집, 국문학회, 181-197쪽.
-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찬부 역, 「쾌락원칙을 넘어서」,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12, 299-301쪽.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3쇄, 민속원, 2016.
- 최원오, 「한국 무속신화에서의 ‘웃음’의 기능과 위상: <이공본풀이>의 ‘웃음웃을꽃’ 신화소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53집, 겨레어문학회, 2014, 61-87쪽.
- 함명희, 「‘서천꽃밭’을 통해 본 제주인의 죽음관 - 산 자와 죽은 자의 공간 ‘서천꽃밭’」, 『탐라문화』 제75호, 77-129쪽.
- Jacques Lacan, 1977, Desire and the Interpretation of Desire in Hamlet(Jacques-Alain Miller, edit. James Hulbert, trans.), Yale French Studies 55/56, Yale University Press, Connecticut, pp. 36-38.

<Abstract>

The Meaning of the God's Place concerning
Death and Mourning in Bonpuri
- Focusing on <Chongongbonpuri> and
<Leegongbonpuri> -

Kang, Ji-Young*

This paper aims to seek the level of mourning from the death, reincarnation, and the seat of the gods in <Chogongbonpuri> and <Igongbonpuri>. The mother's death in <Chogongbonpuri> shows that her body disappears from the earth. She rebirths in the earth and becomes a goddess. It shows prolonged mourning for the dead. The sons' physical death do not clearly show. Sons go to heaven by the God's order, then they become gods. Since there is no reincarnation of the body, it could mean the mourning for them would be different for their mother. The Wongangami of <Chogongbonpuri> is quite physically damaged and dies. Although she is reincarnated, she becomes a goddess in the Seocheon flower field, the middle area between paradise and hell. It shows a different level of the mourning from the mother and sons in <Chogongbonpuri> because their body are not harmed. Since death is related to the body, the trauma would also be different. The places where the characters become gods show that the levels and ways of mourning for the dead could also be different due to the physical damages.

* Mokpo National University

234 한국문학논총 제100집

Key Words: Chugongbonpuri, Yigongbonpuri, Death, Mourning, The
Place for Gods

■ 논문접수 : 2025년 7월 29일
■ 심사완료 : 2025년 8월 16일
■ 게재 확정 : 2025년 8월 16일